

## 蘇軾 詩文의 崔岵 詩에 대한 영향

류 소 진\*

## 〈目次〉

- |                    |                   |
|--------------------|-------------------|
| I. 서론              | 2. 시재의 과시를 위한 화소시 |
| II. 和蘇詩 창작         | III. 蘇軾 관련 典故 使用  |
| 1. 소식과의 교유를 위한 화소시 | IV. 결론            |

## I. 서론

北宋 문인 蘇軾(1036~1101)은 고려 시대에 이미 그의 시문집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많은 문인들이 그의 작품을 즐겨 읽고 학습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식의 영향력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약 90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된 그의 영향력이 늘 비슷한 상태로 유지될 수는 없고, 사상적 배경이나 사회적 기풍 등의 변화에 따라 각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 중기에는 性理學의 영향을 받아 소식에 대한 추앙과 학습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소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성리학이 성행함에 따라 그의 사상과 학문이 신랄한 비판을 받으며 그에 대한 純儒들의 배격이 아주 심해졌으며, 나아가 소식 문학의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기도 했다.<sup>1)</sup> 더욱이 이 무렵 시대에는 杜甫를 위시한

\* 우송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

1) 조선 중기에 성리학이 성행함에 따라 문단 내에 소식을 향한 추앙의 열기가 잠시 식었으며 심지어 비판의 목소리까지 커졌는데, 이는 洛蜀黨爭과 관련이

唐詩를 숭상하는 풍조가 생겨남에 따라 宋詩에 대한 애호가 감퇴했으니 송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소식의 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 중기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인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선 중기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 자체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고려 및 조선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살펴 보던 중에 조선 중기 무렵에 이르러 소식 추앙의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이 시기의 性理學者 중에도 李滉(1501~1570)·金麟厚(1510~1560)·朴世采(1631~1695)·崔昱(1539~1612)<sup>2)</sup> 등 상당수가 시단의 전체적인 흐름과 별개로 소식을 좋아하고 배우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입<sup>3)</sup>(字 立之, 號 簡易東阜)은 文運이 번창했던 宣祖 연간에 빈한한 가문의 서얼로 태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애썼다. 어려서부터 글 쓰는 재주가 남달라 일찍이 文名을 얻었던 그는 훗날 八文章의 한 명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漢文四大家에 비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당대 일류의 문장가로 인정받아 중국과의 외교 문서를 많이 작성했다. 그는 명나라에 갔을 때 당시 문단의 맹주였던 王世貞(1526~1590)을 만나 문장을 논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곳 학자들로부터

깊다. 洛蜀黨爭이란 元祐(1086~1093) 연간에 程顥·程頤를 중심으로 한 洛黨과 蘇軾·蘇轍을 중심으로 한 蜀黨 사이의 학문적 다툼이 급기야 정치적 압력으로까지 발전한 당파간의 분쟁이다. 이로 인하여 洛派의 뒤를 이은 程朱學派 즉 성리학자들이 蜀派의 영수였던 소식을 몹시 증오하게 되었는데,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대부분 이 영향을 받아 소식의 爲人이나 학술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생겨났던 것이다.

- 2) 한성금은 “이러한 성리학의 존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대의 독보적 사상이었다.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추종하고 있던 최립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簡易 崔昱의 使行詩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韓國詩歌文化研究》 제33권, 2014), 407쪽 참조]라 말했다.
- 3) ‘崔昱’을 ‘최립’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각각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최입’으로 표기한다.

명문장가라는 극찬을 받아 그의 글이 車天輅의 시 및 韓濩의 글씨와 함께 松都三絶이라 일컬어지게 되기도 했다.<sup>4)</sup> 이처럼 최입은 문장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의 문장에 주목하지만 시에 있어서도 문장 못 지않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5)</sup>

지금까지 최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시보다 문장에 치우쳐 있어서 시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미진한 편이다.<sup>6)</sup> 특히 소식과의 영향 관계를 따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조선 중기의 性理學者 가운데 한 사람이자 八文章으로 文名을 날렸던 최입의 시에 대한 소식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 4) 최입의 생애에 관해서는 민병수, 《한국한시사》(태학사, 1996), 307쪽, 김덕수, 〈崔岵 漢詩의 美的 特徵〉(《韓國漢詩研究》 제8권, 2000), 354-356쪽, 김남기, 〈簡易 崔岵의 생애와 시세계〉(《韓國漢詩作家研究》 제6권, 2001), 441-443쪽 및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簡易堂集》의 초록내용/해제내용([https://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service=KOLIS&vdkvgwkey=1156151&colltype=DAN\\_OLD](https://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service=KOLIS&vdkvgwkey=1156151&colltype=DAN_OLD)) 등을 참고했다.
- 5) 최입의 시에 대하여 南龍翼은 《壺谷漫筆》에서 “宣廟朝에 시문을 겸비한 이로는 간이(최입)를 으뜸으로 처야 한다(宣廟朝, 詩文之兼備, 當以簡易爲首)”라고도 했고, 또 “최간이(최입)의 문장은 점필재(김종직)·계곡(장유)과 같은 반열에 들어 국조의 삼대가이다. 문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시 또한 峻嚴하면서도 가락의 울림을 겸했다(崔簡易之文, 列於佔畢·谿谷, 爲國朝三大家. 文則未知優劣, 而詩亦峭刻, 兼以調響)”라고도 했다. 그리고 洪萬鍾은 최입의 시를 더욱 높이 평가하여 《小華詩評》에서 “허균은 간의의 시는 본래 스승에게 배워서 이어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격조를 창조했으니 뜻은 깊고 시어는 걸출하여 성물을 갈고 닦으며 꽃과 풀을 주워 엮는 자들이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여겼다. 나는 간의의 시가 문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許筠以爲簡易詩, 本無師承, 自創爲格, 意淵語傑, 非切磨聲律採掇花草者, 所可企及. 吾以簡易詩爲勝於文云)”라 했다.
- 6) 최입의 시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김현미의 《簡易 崔岵의 使行詩 研究》(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덕수의 《崔岵의 삶과 詩世界》(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남기의 〈簡易 崔岵의 생애와 시세계〉(《韓國漢詩作家研究》 제6권, 2001), 김덕수의 〈崔岵 漢詩의 美的 特徵〉(《韓國漢詩研究》 제8권, 2000), 한성금의 〈簡易 崔岵의 使行詩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韓國詩歌文化研究》 제33권, 2014), 김우정의 〈宣祖 연간 文壇의 推移와 崔岵의 詩文〉(《漢文學論集》 제50권, 2018)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과 관련 지은 연구로는 崔岵의 사행시 연구가 있다.

## II. 和蘇詩 창작

和韻은 처음에는 주로 동시대 문인들 사이의 교유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미 죽은 옛날 사람의 시에 追和하는 기풍까지 생겼다. 고려 중기에 소식을 추앙하고 학습하는 열풍이 생겨난 이후,<sup>7)</sup> 고려 및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소식의 시에 추화한 시, 즉 「和蘇詩」<sup>8)</sup>를 창작하게 되어 문인들 사이에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최입 역시 적지 않은 화소시를 지었다.

〈표 1〉 崔岙의 和蘇詩<sup>9)</sup>

	崔岙 和蘇詩		蘇軾 原詩
1	雪後, 次東坡韻, 四首	4수	雪後書北臺壁, 二首
2	微雪, 復次坡詩韻, 四首	4수	
3	穀日大雪, 復次坡韻, 并下爲四首	2수	

7) 金富軾(1075~1151)의 이름이 「蘇軾」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李奎報(1168~1241)가 <전이지에게 답하여 글월에 관하여 논하는 편지(答全履之論文書)>(서울대학교 奎章閣本 《東國李相國全集》 卷26)에서 “세상의 학자들이 처음에 과거 시험에 필요한 문체를 익히느라 풍월을 일삼을 겨를이 없다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시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소동과 시 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과거의 방이 나붙은 뒤에 사람마다 금년에 또 서른 명의 소동과가 나왔다고 여긴다(世之學者, 初習場屋科舉之文, 不暇事風月, 及得科第, 然後方學爲詩, 則尤嗜讀東坡詩, 故每歲榜出之後, 人人以爲今年又三十東坡出矣)”라 했을 정도로 고려 중기에 이미 소식 추앙 및 학습 열기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8) 陶淵明의 시에 추화하여 지은 화답시를 「和陶詩」라고 부르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으므로, 필자는 이를 원용하여 소식 시에 추화한 시를 「和蘇詩」라 부르고 있다.

9) 이 표는 필자가 《簡易集》(韓國文集叢刊本)에 수록된 최입의 시문 가운데 화소시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최입의 화소시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기에, 《簡易集》에 실린 최입의 시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화소시를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詩題만으로는 화소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시제뿐 아니라 다양한 검색어로 검색해 보기도 했다.

4	次日雪晴, 月又明甚	2수	
5	連有大雪, 復次坡韻, 四首	4수	
6	鞍山道中, 次東坡龜山韻, 因效其首語而成	1수	龜山
7	牛家庄泉水甚惡不可飲, 取雪救渴, 次東坡汲江煎茶韻	1수	汲江煎茶
8	台座分送漬蜜葡萄, 疊韻以謝 <sup>10)</sup>	1수	
9	立春日, 次東坡(立春日, 病中邀客)韻, 二首	2수	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飲,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 二首
10	元日, 疊立春日韻, 二首 <sup>11)</sup>	2수	
11	除夜, 次東坡(除夜野宿)韻, 二首	2수	除夜野宿常州城外, 二首
12	人日, 次坡詩韻, 聊抒感憤, 二首	2수	庚辰歲人日作, 時聞黃河已復北流, 老臣舊數論此, 今斯言乃驗, 二首
13	上元, 次東坡示過韻, 寄家子, 二首	2수	上元夜過赴儋守召, 獨坐有感

이상과 같이 현전하는 최입의 화소시는 총 13題 29首이고, 그가 차운한 소식의 원시는 총 7수이다.

최입의 화소시는 창작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최입의 화소시는 일반적으로 시제에다 소식의 어느 시에 차운했는지를 밝혀 놓았는데, 이 시는 첩운이라 시제에서 원운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11) 이 시 역시 <표 1>의 9번 <立春日, 次東坡(立春日, 病中邀客)韻, 二首>와 마찬가지로 소식의 입춘일 시에 차운한 것이지만 입춘일 당일이 아니라 원일에 첩운한 것이라 시제에서는 첩운했다고만 밝혀 두었다.

## 1. 소식과의 교유를 위한 화소시

和詩의 창작 목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바로 原昌者와의 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追和詩의 경우에는 이미 古人이 된 원창자와의 직접적인 교유가 불가능하기에, 대개 和者가 원창자에 대한 추모와 동경의 마음을 담아 원창자와 정신적인 교유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최입 역시 이러한 마음에서 기인하여 지은 화소시가 적지 않은데, 최입의 화소시를 소식 원시와 대조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식 원시와 창작 배경이 일치했으며, 특히 입춘·제야·인일·상원일<sup>12)</sup> 등 명절을 맞아 쓴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입춘날에 (입춘날 병중에 손님을 맞이한) 동파의 시에 차운하다(立春日, 次東坡(立春日, 病中邀客)韻, 二首)><sup>13)</sup>라는 시는 시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식이 입춘날 병중에 손님을 맞아 쓴 시에 차운한 것이다. 우선 소식의 원시부터 살펴보자.

입춘날 병석에 누워 안국을 초청하면서 아울러 그에게 우공을 데리고 함께 오기를 청한다. 내가 술을 마실 수 없어서 성백에게 모임을 주재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옆에서 지팡이를 짚거나 안석에 기댄 채 사람들이 술에 취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쌓인 답답함을 씻어야겠다(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飲,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 二首)<sup>14)</sup>

其一

孤燈照影夜漫漫, 외로운 등은 그림자 드리우고 밤은 아득히 길기만 한데  
拈得花枝不忍看. 꽃가지를 집어 든 채 차마 보지 못했다오.  
白髮敲簪羞彩勝, 백발에 기우뚱 비녀 꽂고 채승을 대하기 부끄러운데

12) 각각 <표 1>의 9, 11, 12, 13번에 해당한다. 10번도 9번과 동일하게 소식의 입춘 시 운자에 차운했지만 10번은 첩운이라 입춘에 대해 노래하지는 않았다.

13) 崔岵, <甲午行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14)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4.

黃耆煮粥薦春盤。	황기로 죽 끓이고 춘반을 갖다 주었다오.
東方烹狗陽初動。	동쪽에서 개고기 삶으며 대지에 막 양기가 돌고
南陌爭牛臥作團。	남쪽 두렁에서 겨루던 소는 쓰러져 누워 흙덩이가 되는데
老子從來興不淺。	이 늙은이 옛날부터 흥이 적지 않았거늘
向隅誰有滿堂歡。	모퉁이 향해 서 있으면 넘치는 즐거움을 어찌 누리리오?

其二

齋居臥病禁烟前。	한가로이 병석에 누운 채 한식을 앞두고 있나니
辜負名花已一年。	고운 꽃을 외면한 지 이미 한 해가 되었다오.
此日使君不強喜。	이날에 이 태수가 억지로 즐기지 않는다면
早春風物爲誰妍。	이른봄의 풍물이 누굴 위해 멋 내리오?
靑衫公子家千里。	푸른 적삼의 공자는 천 리 밖에 집이 있고
白髮先生杖百錢。	머리 허연 선생님은 지팡이에 백 전이 뚫혔다지만
曷不相將來問病。	어찌하여 다 함께 와서 문병을 하지 않으시오?
已教呼取散花天。	벌써 하늘에 꽃을 뿌릴 천녀도 부르게 했다오. <sup>15)</sup>

소식은 이 시를 짓기 전까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비록 건강이 좋지 않지만 입춘을 맞았으니 억지로라도 즐겨보고자 지인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벌여 보려고 초청장 삼아 이 시를 보낸 것이다.

이 시에 차운한 최입의 화소시는 아래와 같다.

其一

臘盡新陽始布漫。	설달이 다 가고 새 별이 막 펼쳐지니
皇都樂事剩堪看。	황도에는 즐거운 일이 더욱 볼 만하구나
人人綵勝簪欵側。	사람마다 꽃은 채승 <sup>16)</sup> 이 기우뚱한 비녀 같고
戶戶香煙篆屈盤。	집집마다 향 연기가 꼬불꼬불한 篆字 같다.

15) 본고에서 인용한 소식 시의 번역문은 《정본완역 蘇東坡詩集》(1-3)[蘇軾 著 (柳種陸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16) 綵勝은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옛날 장식물의 일종이다. 唐宋 때에는立春이 되면 종이나 비단을 예쁘게 오려서 머리에 달거나 꽃나무에 매어 둠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풍속이 있었다.

小歲觴須椒柏醞, 새해맛이 술은 산초 열매와 측백 잎으로 빚어야 하며  
羣羞壓用鳳龍團, 진수성찬 먹은 뒤엔 용봉을 찍은 차가 좋다.  
羈懷更覺逢辰惡, 나그네의 마음이 명절을 맞아 더욱 안 좋은지라  
薄具相將亦強歡, 변변찮은 안주라도 함께 들며 애써 기뻐해 본다.

其二

本擬歸期在臘前, 본래 선달이 되기 전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誰知踰躄向新年, 일이 잘못돼 여기에서 새해를 맞을 줄 누가 알았으리?  
榮盤却憶貧妻具, 가난에 쪼들린 아내가 마련했던 나물 소반이 오히려 그림고  
花勝那看小女妍, 어린 딸이 예쁘게 꽃은 화승<sup>17)</sup>이 더욱 그림다.  
市上猶堪沽美酒, 저자거리에 가면 맛 좋은 술이야 살 수 있지만  
囊中可奈乏留錢,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이 없으니 어찌하리.  
他鄉不用宜春帖, 타향에서 입춘첩을 쓰들 무슨 소용이리?  
默禱腥氛淨海天, 바닷가 하늘의 비린내가 사라지기만을 말없이 기도한다.

이 시는 명나라로 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입춘을 맞게 된 최입이 목도한 중국인들의 입춘 풍속을 묘사함과 동시에 나그네로서의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당시 최입은 「請兵」의 임무를 안고 명나라에 갔는데, 일이 생각처럼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아 예정과 달리 그곳에서 새해까지 맞게 되었고, 명절을 맞아 더욱 짙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술로 달래 보고자 하나, 설상가상 주머니 속에는 남은 돈마저 없는 서글픈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타향에서 입춘첩을 써 봐야 소용없을 터, 바닷가 하늘의 비린내가 사라지기만을 빌어 본다. 이는 왜인들의 침략이 끝나기를 빌 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변변찮은 안주라도 함께 들며 「애써 기뻐해 보려는(強歡)」 나그네의 마음은 바로 앞에서 묘사한 입춘을 즐기는 명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서글프게 느껴진다. 「애써 기뻐해 보려는(強歡)」이라는 표현은 소식 원시 其二의 제3구에서 「억지로 즐긴다(強喜)」라는 표현을 빌려 온

17) 花勝은 綵勝과 같다.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식 역시 타향인 密州에서 입춘을 맞았는데, 소식이 「억지로 즐길(強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타향살이를 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병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최입과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명절을 기꺼이 즐길 수 없고, 「억지로(強)」 즐겨야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마도 최입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소식을 떠올리며 아픔을 공감하고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화 소시를 씌으로써 소식과의 정신적 교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식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와 정신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는 최입의 심리는 <선달 그림날 밤에 동파의 시 <선달 그림날 밤에 노숙하며>에 차운하다(除夜, 次東坡(除夜野宿)韻, 二首)><sup>18)</sup>라는 시에 더욱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시 其二의 제7-8구에서는

野宿雖寒不局鎖,    집 밖에서 자느라 비록 춥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나니  
千年相謝與仙蘇.    천 년 뒤에 감사하며 신선 소씨와 함께하네.

라며 직접적으로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의 원시인 <선달 그림날 밤에 상주성 밖에서 노숙하며(除夜野宿常州城外, 二首)><sup>19)</sup>는 소식이 熙寧 6년(1073) 연말에 潤州·常州 등 관할지역을 시찰하며 공무를 처리하던 중 상주성 밖에 배를 정박해 놓고 배 안에서 제야를 보내는 처량한 심사를 노래한 것이다. 이 시 其一의 제7-8구에서

多謝殘燈不嫌客,    가물거리는 등불이 나그네를 싫다 하지 않고  
孤舟一夜許相依.    외로운 배에서 밤새도록 함께해 주어서 고맙네.

라며 외로운 자신과 함께 밤새워 준 가물거리는 등불에 감사하는 마음을

18) 崔岙, 《甲午行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19)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1.

표현했다. 이와 연관지어 본다면, 최입이其二 제7-8구에서 “집 밖에서 자느라 비록 춥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나니, 천 년 뒤에 감사하며 소선과 함께하네(野宿雖寒不扃鎖, 千年相謝與仙蘇)”라 한 것은 소식이 등불에 감사했던 것처럼 자신은 소식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마치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동시대인으로서 소식을 맞이하기라도 하려는 듯 문도 잠그지 않았다. 이 역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소식을 떠올리며 감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해 본 것이다. 최입은 심지어 소식을 「仙蘇」라 하며 신선 시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소식을 향한 동경과 흠모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소식은 다방면에서 남다른 재능이 있었지만 정치적 역경이 많아 거의 평생 동안 외지를 떠돌았고, 이러한 까닭에 많은 시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서글픈 마음을 토로하는 한편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사행 임무의 어려움에서 오는 좌절감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 등으로 복잡한 심경이었던 최입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던 소식의 시를 읽으면서 정신적 교유를 하고자 화소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행위에는 소식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해 보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 2. 시재의 과시를 위한 화소시

최입은 은연중에 자신의 시재를 소식과 견주어 보고자 하는 심리에서 화소시를 짓기도 했다. 그는 소식의 동일한 시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차운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눈이 내린 뒤에 동파의 시에 차운하다(雪後, 次東坡韻, 四首)><sup>20)</sup>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화소시 가운데 최초의 작품이다.

20) 崔岵, 《甲午行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其一

疎疎密密復纖纖,	성글게 촘촘하게 다시 가늘게 내리는지라
嫵媚玄冥未覺嚴.	아름다워서 겨울신 현명이 엄한 줄도 몰랐네.
餅餌爭投金色鯽.	금붕어에게 떡밥을 다투어 던져 주고
杯盤易飮水精鹽.	소반 위의 수정 소금을 배불리 먹게 했네.
梅花照夜偏侵牖,	매화가 밤을 밝히며 창을 잘도 비취 주고
柳絮隨風故入簷.	버들개지가 바람 따라 오래도록 처마에 들어왔네.
客子明朝應起早,	나그네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네
要看天際玉峯尖.	하늘 끝의 뾰족한 옥 봉우리 보려면.

이 시는 금붕어에게 던져 주는 떡밥, 소반 위의 수정 소금, 버들개지, 옥 봉우리 등 각종 비유를 사용하여 눈이 내리는 모습과 설경을 묘사했다.

최입이 차운한 소식의 원시는 <눈이 내린 뒤 북대의 벽에 쓰다(雪後書北臺壁, 二首)><sup>21)</sup>로 소식이 눈이 내린 뒤의 감회를 읊어서 密州 北城 위에 있던 누대의 벽에 써 놓은 것이다. 최입은 위의 시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각각 4수씩 총 16수의 화소시를 남겼는데,<sup>22)</sup> 동일한 시에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차운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단순히 이때 눈이 여러 번 내려서라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자신의 시재를 과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陸游는 <소동파가 「尖」·「又」운을 써서 눈을 읊은 시에 화답한 여성숙의 시를 읽고(跋呂成叔和東坡尖又韻雪詩)>에서 “소문충공의 문집에 「尖」·「又」 두 자를 써서 눈을 읊은 시가 있고 왕문공의 문집에는 또 소식의 운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있는데 논자들이 말하기를 ‘이들 두 분 말고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예주통판 성숙 여문지는 마침내 단 번에 100편을 창화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절묘하여 억지로 끝어다

21)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2.

22) <표 1>에 수록된 1번부터 5번까지 즉, <雪後, 次東坡韻四首>, <微雪, 復次坡詩韻四首>, <穀日大雪, 復次坡韻并下爲四首>(이 4수에는 <次日雪晴, 月又明甚>라는 별도의 제목을 붙인 2수가 포함되어 있다), <連有大雪, 復次坡韻四首>가 그것이다.

붙인 병폐가 없다”<sup>23)</sup>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많은 시인들이 이 시에 화답시를 지었다.<sup>24)</sup> 이 시의 운자가 險韻이라 시를 짓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훌륭한 시를 짓자, 시인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일부러 이 시에 화답시를 지었던 것 같다. 소식이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앞 시에 화답한 것에 감사하여(謝人見和前篇, 二首)><sup>25)</sup>라는 시까지 지은 것 역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준다.

비단 중국 문인들뿐 아니라 고려 및 조선 문인들도 이 시에 적지 않은 화답시를 남겼으니,<sup>26)</sup> 최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시에 차운한 데에도 이와 같이 시재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 같다.

소식도 화도시를 쓰면서 “내가 전후로 그의 시에 화답한 것이 모두 백 수십 편인데, 득의한 데에 이르면 도연명에 부끄럽지 않다”<sup>27)</sup>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시재 과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식이 화도시를 쓸 때, 도연명을 향한 추앙심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도연명과 詩才를 비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처럼, 화소시를 쓴 많은 문인들 역시 소식과 비슷한 심리로, 그의 시에 추화함으로써 소식에 대한 흠모를 표현하고 그의 시를 학습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시재

23) “蘇文忠集中有雪詩，用尖·叉二字，王文公集中又有次蘇韻詩，議者謂：‘非二公莫能爲也。’通判澧州呂文之成叔，乃頤和百篇，字字工妙，無牽強湊泊之病。”[陸游，〈跋呂成叔和東坡尖叉韻雪詩〉(文淵閣四庫全書本《渭南文集》卷30)]

24) 蘇軾 著(柳種陸 譯註)，《정본완역 蘇東坡詩集2》，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300쪽 참조.

25)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 <雪後書北臺壁，二首>에 찬화한 것을 보고 이에 감사하는 뜻에서 다시 차운하여 두 수를 지은 것이다. <雪後書北臺壁，二首>는 王安石·呂文之 등 당시 문인들의 唱和詩가 굉장히 많았거니와 왕안석이나 여문지가 이 시를 보기도 전인 눈이 내린 직후에도 密州 문인들이 北臺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번갈아 찬화시를 지었는데 <謝人見和前篇二首>는 이에 대하여 다시 찬화한 시인 것으로 보인다. 蘇軾 著(柳種陸 譯註)，《정본완역 蘇東坡詩集2》，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304쪽 참조.

26) 예를 들면, 李仁老의 <雪用東坡韻>，徐居正의 <次東坡咏雪詩韻，效荊公>，朴世堂의 <次東坡詠雪韻> 등이 있다.

27) “吾前後和其詩凡百數十篇，至其得意，自謂不甚愧淵明。”[蘇軾，〈欒城後集〉卷21(《欒城集》，上海古籍出版社，1987)〈子瞻和陶淵明詩集引〉]

를 소식이라는 대문호와 한 번 겨루어 보고 싶은 욕구가 내재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입은 자신의 시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는 金昌協의 다음 문장에 소개된 일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일찍이 듣자하니 권석주(권필)가 간이를 만나 “지금 문필로는 실로 우리 어르신이 계십니다만 시는 누가 문단에서 이름을 떨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이는 간이가 틀림없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간이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이 늙은이가 죽은 후에는 누가 문단에서 이름을 떨칠지 모르겠네”라 했다. 석주는 무안하여 부끄러워했다. 그는 이처럼 자부심이 강했다(嘗聞權石洲見簡易問曰: “當今文筆, 固有吾丈, 在詩則當推何人擅場?”, 蓋意其必許己也. 簡易瞑目良久曰: “不知老夫死後何人擅場耳.” 石洲慙然有慚色, 其自負如此云).<sup>28)</sup>

이렇듯 자신의 시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그였으니, 중국의 대문호 소식이 쓴, 그것도 험운을 사용했음에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은 이 시에 수차례 차운함으로써 자신의 시재를 소식과 한 번 견주어 보고 싶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최입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뛰어난 문장가로서 壬辰(倭亂)을 전후하여 네 번이나 명나라에 다녀왔고, 사행 도중 철저한 유교이념을 통해 조선의 신하로서 자존의식을 갖고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sup>29)</sup> 이 시 역시 명나라에 사행을 갔을 때 지은 것이다. 그는 이때 「請兵」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에 주청하러 온 신하로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신의 훌륭한 시문 창작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굴욕감을 씻어 내고 보다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sup>30)</sup>

28) 金昌協, 〈雜識·外篇〉(韓國文集叢刊本 《農巖集》 卷34)

29) 한성금, 〈簡易 崔昱의 使行詩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 《韓國詩歌文化研究》 제33권, 2014, 424-425쪽 참조.

30) 한성금은 “그의 낮은 문벌은 최립에게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오

이처럼 최입은 소식과의 정신적 교유를 시도하기 위해 혹은 소식과 시재를 비견하며 은연중에 자신의 시재를 과시해 보고자 화소시를 지었다. 그런데 필자는 최입의 화소시를 검토하던 중, 그의 화소시가 모두 《甲午行錄》에 실려 있으며, 또 전부 칠언율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갑오행록》은 宣祖 27년(1594)에 최입이 奏請副使로서 원병의 파견과 光海君의 세자 책봉을 奏請하러 명나라에 갔을 때의 시를 모은 것인데,<sup>31)</sup> 유독 이 시기에만 화소시를 지었다는 점이 의아하여 최입의 문집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으나, 다른 시기에 지은 화소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이 시기에만 화소시를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기에 지은 화소시는 산일되어 전해지지 않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갑오행록》에 수록된 화소시 이외에 다른 작품은 찾지 못했다.

만약 실제로 최입이 유독 이 시기에만 화소시를 지은 것이라면 그 연유가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최입이 쓴 〈甲午行錄後序〉를 통해 다소나마 그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이 글에서 “나는 소동파의 시에 익숙하지 않다. 甲午年(1594)에 京師로 갔을 때 본국에서는 전쟁으로 서책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동파의 율시집을 한 권 사 보았을 뿐이다”<sup>32)</sup>라고 밝혀 놓았다. 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그는 원래 소식의 시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행길에 올랐다가 소식의 율시집을 한 권 사게 되었고,<sup>33)</sup> 이를 계기로 그곳에서 소식의 시를 읽던 중

적 뛰어난 문장 실력과 군주에 대한 충성이었다”(〈簡易 崔笠의 使行詩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 401쪽 참조)라 했는데, 이처럼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최입의 심리가 위와 같은 화소시 창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1) 이때 奏請使는 尹根壽(1537~1616), 奏請副使는 崔昱(1539~1612), 書狀官은 申欽(1566~1628)이었다.

32) “余非熟東坡詩。甲午如京，爲本國書亡於兵火，僅購看蘇律一本。”[崔昱, 〈甲午行錄後序〉(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甲午行錄》)]

33) 최입의 〈경사로 가는 유서경을 전송하며(送柳西峒赴京師序)〉에 “다만 지금은 兵火를 당한 나머지 公私 간에 소장한 책들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으니, 京師에 가면 책을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볼 만

특별히 마음에 와 닿은 시가 있어 여러 차례 소식의 시에 화운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그가 당시 구입한 소식시집이 율시집이었기 때문에 그의 화소시가 모두 율시였던 것 역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율시 가운데에서도 유독 칠언율시만 골라 화운한 이유는 따로 밝혀 놓은 것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첫째, 당시 최입이 구했던 소식시집에 칠언율시만 수록되어 있었을 가능성, 둘째, 당시 구했던 소식시집에는 오언율시와 칠언율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었지만 평소 칠언율시 짓는 것을 좋아했던<sup>34)</sup> 최입이 일부러 칠언율시만 골라서 화운했을 가능성, 셋째, 당시 오언율시에 대해서도 화운한 것이 있었지만 추후 산일되었거나 문집 편찬 시 수록하지 않았을 가능성<sup>35)</sup> 등의

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구해 올 것을 청해도 되겠는가?(第今兵火之餘, 公私藏書具亡, 之京師也, 不能不汲汲於求書. 然請必求其可觀者而已可乎?) [崔嵬, 《簡易集》(韓國文集叢刊本) 卷3]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서책을 구입하는 최입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입이 당시 소식의 율시집을 산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소식시집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며, 어쩌면 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번 사행길에 꼭 사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 34) 최입은 평소 칠언율시 짓는 것을 특히 좋아했으며, 실제로 그의 칠언율시에 대한 평가도 다른 詩體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덕수는 “허균의 《國朝詩刪》에는 칠언고시 1수만이 선발되어 있으나 이후의 시선집에는 여러 작품이 선발되어 있다. 즉, 남용익은 《箕雅》에서 총 23수를, 閔百順은 《大東詩選》에서 10수를, 張志淵은 《大東詩選》에서 19수를 선록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립은 詩作에서 오언시보다 칠언시를 많이 지었고, 특히 七言律詩의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이것은 칠언율시가 勁健한 풍격을 담기에 적합한 시형인데서 비롯되었다”(《崔嵬의 삶과 詩世界》,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5쪽 참조)라 했고, 김남기는 이를 인용한 후 “이러한 시작 경향을 반영하듯 역대의 시선집에서도 칠언율시가 가장 많이 선발되어 있다”(《簡易 崔嵬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제6권, 2001, 446-447쪽 참조)라 했다.
- 35) 최입의 문집 편찬과 관련하여 김남기는 “최립은 죽기 전에 자신의 문집을 自編하여 몇 권의 책으로 남겨 놓았다. 생전에 원고를 스스로 편집한 것은 한미한 출신이라 死後에 詩文이 유실될까 염려되었고, 또한 문집의 간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사정에서 기인한 듯하다”(《簡易 崔嵬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제6권, 2001, 443쪽 참조)라 했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蘇軾 관련 典故 使用

최입은 시를 지을 때 종종 소식의 시어를 변형시키거나 소식 관련 故事를 차용하여 자신의 詩語로 삼았다.

〈영위사 황경미가 제야가 지난 뒤에 부쳐 온 시에 차운하다(次韻黃迎慰景美除夕後寄詩)〉<sup>36)</sup>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才因傍覺穢, 재주는 이로 인해 옆 사람이 자신의 못남을 느낄 정도요  
量匪洗求瘼. 도량은 씻고 닦아 애써 남의 흠을 찾지 않지요.

소식의 〈공문중 추관이 보내온 시에 차운하다(次韻孔文仲推官見贈)〉<sup>37)</sup>에

肯效世俗人, 어찌 세속적인 다른 사람 흉내내어  
洗刮求癩瘕. 씻고 닦아 흉터를 찾아내려 했으리오?

라는 시구가 있는데 최입의 시는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의 이 시는 孔文仲이 台州推官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杭州에 들러 소식과 함께 지낼 때 소식에게 지어준 시에 차운하여 지은 것으로, 공문중을 만나게 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의 능력과 덕망을 칭송했는데, 위의 두 구절에 소식의 이런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최입의 시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 시는 평소에 늘 그리워했지만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했던 黃璉(黃景美)이 보내 온 시에 차운한 것인데, 위의 두 구절은 바로 황진의 능력과 덕망을 칭송하기 위해 소식의 표현을 빌려 와 글자의 배치를 조금 바꿔서 새로운 시구로 만든 것이다. 소식의 시와 창작배경이 유사할 뿐 아

36) 崔岵, 《西都錄·後》(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8)

37)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8



나라 표현까지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태학사 윤해평이 시문을 보여 준 것에 감사하다(謝大學士尹海平示詩文)〉<sup>38)</sup>에는

乍窺渾似眩童兒, 얼핏 보니 아동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았는데  
徐覺詞高意不離. 찬찬히 보니 뜻과 걸맞은 고상한 글임을 알겠네.

라는 시구가 있는데, 이는 尹根壽(尹海平)가 최입 자신에게 보내 준 시문을 평한 말이다. 소식이 〈왕일소의 서첩에 쓰다(題王逸少帖)〉<sup>39)</sup>에서

有如市娼抹靑紅, 저갓거리의 창기가 얼굴에 울긋불긋 색칠하고  
妖歌嫵舞眩兒童. 요염한 노래 간드러진 춤으로 아동을 홀리는 것 같았네.

라 했는데, 이 시는 왕희지의 서첩을 본 감회를 노래한 것으로, 張旭이나 懷素의 글씨가 멋을 낸 것에 반해, 王羲之의 글씨는 소박하고 초탈하면서도 생동적이고 기개가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眩兒童」은 장옥과 회소의 글씨가 왕희지의 글씨와 달리 멋을 부렸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것인데, 최입은 「眩童兒」로 글자의 순서를 바꾸었지만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다만 소식의 시에서 평가한 대상은 글씨이지만, 최입의 시에서 평가한 대상은 시문이라는 차이는 있다.

〈오산이 두보의 시에 차운하여 천자의 군사를 읊은 시에 화답하다(和五山次杜韻賦天兵)〉<sup>40)</sup>에는

大將熊羆先唾手, 곰 같은 대장들은 먼저 손에 침을 뱉고  
名臣獬豸亦囊裳. 해태 같은 명신들도 바지를 걷어 올렸네.

38) 崔岙, 《癸巳行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6)

39)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25

40) 崔岙, 《松都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역시 소식 시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의 〈「過」자를 운자로 배정받은 장관 뇌승을 대신하여 짓다(將官雷勝得過字代作)〉<sup>41)</sup>라는 시에 뇌승의 입장에서 용감하고 씩씩한 그의 기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바 있다.

一雙鐵絲箭, 철사처럼 가느다란 한 쌍의 화살  
未發手先唾. 쏘기 전에 먼저 손에 침을 뱉는다.

「손에 먼저 침을 뱉는 것(手先唾)」은 결의를 굳게 다지는 의미로, 최입은 소식 시구에서 글자 순서를 바꾸어 「先唾手」라 했는데, 소식 시에서 장관 뇌승의 씩씩한 기개를 표현한 것과 유사하게 천자의 군사들이 용맹함을 비유하기 위해 쓴 표현이다.

〈약로가 봄 추위를 노래한 시에 차운하다(次藥老春寒韻二首)〉<sup>42)</sup>에는

其二  
鬚髭亦解留氷雪, 수염도 얼음과 눈을 남겨 놓을 줄 알아  
撚向吟邊觸指尖. 한 수 읊으려 배매 꼬니 손끝을 뽀족이 찌르네.

라는 시구가 있는데, 시를 한 수 읊으려니 시상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수염을 배매 꼬(撚鬚)」 것이다. 소식의 〈눈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 유자옥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고 아울러 진술고에게 바친다(和柳子玉喜雪次韻仍呈述古)〉<sup>43)</sup>라는 시에

燈青火冷不成眠, 푸른 등불 식은 화로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一夜撚鬚吟喜雪. 밤새도록 수염을 꼬며 눈 오는 기쁨을 읊조렸겠군요.

41)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8

42) 崔岙, 《松都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43)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1

라 했는데, 최입이 이 표현을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수의 시권에 차운하다(延壽卷次韻)〉<sup>44)</sup>에는

寺下澄潭波不興, 물결도 일지 않는 절 아래의 맑은 연못  
吾詩可洗似徐凝. 내 시를 씻을 수 있겠네 서응의 시 같으니.

라는 시구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徐凝의 시는 소식이 악평한 그 시임에 틀림없다. 소식의 시를 보자.

세상에 서응의 시 〈폭포〉에 “한 줄기가 청산 빛을 둘로 가른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전해 오느라 지극히 속되고 비루하다. 또 백낙천의 시라고 알려진 위작에 이 구절을 칭송하여 “겨울 수 없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백낙천이 시를 비록 천근하고 쉽게 썼다고 하나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에 장난 삼아 절구 한 수를 짓는다(世傳徐凝〈瀑布〉詩云: “一條界破青山色.” 至爲塵陋. 又僞作樂天詩稱美此句, 有“賽不得”之語. 樂天雖涉淺易, 然豈至是哉! 乃戲作一絕)<sup>45)</sup>

帝遣銀河一派垂, 천제가 은하에게 한 줄기를 드리우게 했나니  
古來惟有謫仙詞. 예로부터 멋진 것은 적선의 시뿐이었네.  
飛流濺沫知多少, 물줄기가 뿌리는 거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不與徐凝洗惡詩. 그래도 서응이 고약한 시를 씻게 하지 못했네.

이 시는 소식이 廬山에 있는 黃岩瀑布의 거대한 물줄기를 구경하다가 문득 당나라 시인 서응의 〈여산폭포(廬山瀑布)〉라는 시가 생각나서 지은 것으로, 이곳을 노래한 시 가운데 “물줄기 날아 수직으로 삼천 자나 떨어 지니,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 것 같구나(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라고 한 李白의 〈여산폭포를 바라보며(望廬山瀑布)〉라는 시만 멋진 것이며, 서응의 시는 「고약한 시(惡詩)」라고 악평했다. 최입은 바로 소식의

44) 崔岏, 《晉陽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6)

45)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23

이 말을 빌려와 자신의 시를 서응의 시에 비유한 것이다. 다만 소식은 물 줄기가 뿌리는 거품이 서응의 「고약한 시(惡詩)」는 씻을 수 없다고 했지만, 최입은 물결도 일지 않는 맑은 연못이라 형편없는 자신의 시를 씻을 수 있겠다고 한 차이는 있다.

이밖에 최입이 〈높은 산봉우리(高嶺)〉<sup>46)</sup>에서 “애초에 즐겁게 노는 애처럼 흙을 높이 뭉쳐서, 흰 구름과 바위 뿌리가 그다지 멀지 않네(擣土初如逞戲兒, 白雲根石不多離)”라고 한 것은, 소식이 〈사촌 형 정보와 함께 백수산을 유람하다(同正輔表兄遊白水山)〉<sup>47)</sup>에서 “위대하도다 조물주여 참으로 호방하구나, 흙 움키고 모래 뭉쳐 이 장난을 했구나(偉哉造物眞豪縱, 攬土搏沙爲此弄)”라며 마치 조물주가 흙과 모래를 가지고 장난으로 산을 빚은 것 같다고 묘사한바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을 약간 변형시켜서 자신의 시어로 삼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최입이 이처럼 소식 시의 어구를 변형시켜 자신의 시어로 삼은 예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밤에 이야기를 나눈 것을 노래한 오산의 시에 차운하다(次五山夜話韻, 二首)〉<sup>48)</sup> 가운데 “아름다운 이 밤이 만큼짜리였음을 믿게 되리(須信良宵抵萬金)”라는 구절도 “봄밤의 일각은 천금이 나간다네(春宵一刻值千金)”라고 한 소식의 시 〈봄밤(春夜)〉<sup>49)</sup>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입은 시를 지을 때 종종 소식의 시어를 약간 변형시켜서 자신의 시어로 활용했는데, 주로 소식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그것을 서술하거나 혹은 소식 시에서와 유사한 대상을 묘사할 때 소식 시의 표현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식의 시어를 차용한 것 이외에, 소식의 故事를 차용한 경우도 있다. 〈열여드렛날에 달 뜨기를 기다렸다가 배를 타다(十八日, 待月乘舟)〉<sup>50)</sup>

46) 崔岙, 《癸巳行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6)

47)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48

48) 崔岙, 《松都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49)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48

에서는

東臯席罷借漁舟,	동쪽 언덕에서의 자리가 파한 뒤 고깃배를 빌려 타니
遲月眞成赤壁遊.	느릿한 달이 있어 참으로 적벽의 놀이로다.
乘醉不覺人隔世,	취한 김에 다른 시대 사람임을 못 느끼고
謂言三日後風流.	동과보다 사흘 늦은 풍류라고 말한다.

라고 하며 소식의 赤壁船遊 고사를 차용했다. 소식은 황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황주성 서쪽 산기슭의 「赤壁」이라 불리는 곳을 좋아하여 틈만 나면 그곳에 나가 놀다가 詩賦나 詞를 짓고는 했는데, 1082년 7월 16일 밤에는 손님들과 함께 적벽 아래에 배를 띄워 놀다가 〈赤壁賦〉를 지었다. 소식은 또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이해 10월 15일 밤에 한 차례 더 배를 띄워 노닐다가 〈後赤壁賦〉를 짓기도 했다. 전·후 〈적벽부〉는 모두 중국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전·후 〈적벽부〉를 좋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문인들 중에도 소식을 모방하여 적벽선유를 재연한 사람이 많았다.<sup>51)</sup>

앞에서 인용한 최입 시의 제목을 통해 그가 18일에 선유를 했음을 알 수 있고, 제2구의 「적벽의 놀이(赤壁遊)」 및 제4구의 「동과보다 사흘 늦은 풍류(三日後風流)」라는 표현을 통해, 소식이 〈후적벽부〉를 지은 10월 15일보다 3일이 늦은 10월 18일에 배를 탄 것임을 알 수 있다. 얼큰하게 술에 취해 뱃놀이를 하다 보니 소식이 古人 즉, 자신과 다른 시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그래서 이날 자신의 적벽선유가 마치 소식이 적벽선유를 한 날보다 3일 늦게 다시 한 번 하는 것 같

50) 崔岟, 《分津錄》(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6)

51)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도처에 「적벽」이라는 지명이 생겼으니 이는 소식 〈적벽부〉의 영향을 받아 명명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漢江의 蠶頭赤壁, 臨津江의 臨津赤壁, 和順의 和順赤壁, 邊山半島의 赤壁江 등이 있고 이 밖에도 다수의 적벽이 있으니 옛날 문인들이 소식을 본받아 음력 7월 16일이나 10월 15일을 기해 적벽선유를 재연한 곳이다.

다고 하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시인들은 흔히 전고를 사용하여 참신한 미감을 창출하거나 전고의 분위기와 주제를 빌려 자신의 뜻을 말한다. 최입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시를 지었는데, 그중 소식 관련 전고를 차용한 것이 적지 않다. 최입이 이처럼 적재적소에 소식 관련 전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소식의 시문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52)</sup>

####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입은 소식과 정신적으로 교류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시재를 겨루어 보기 위하여 화소시를 짓기도 했고, 자신의 시에 종종 소식의 시어나 소식의 고사를 차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

최입은 만년에 唐宋 시인 열 명의 시를 모아 《十家近體詩》라는 책을 엮었는데 여기에 소식의 시를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발문에서 “이들 열 분 이외에 빠져서 유감스러워할 것 같은 분은 이상원과 소동파 두 분이다. 내가 이 두 분을 좋아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어찌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

52) 최입은 〈甲午行錄後序〉에서 “나는 소동파의 시에 익숙하지 않다. 甲午年(1594)에 京師로 갔을 때 본국에서는 전쟁으로 서책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동파의 율시집을 한 권 사 보았을 뿐이다(余非熟東坡詩. 甲午如京, 爲本國書亡於兵火, 僅購看蘇律一本)”(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甲午行錄》)라며 당시 자신이 소식 시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행길에 소식의 율시집을 샀다는 것은, 비록 그 직전까지 최입이 소식의 시를 많이 읽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소식의 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식의 율시집을 구입한 직후에 바로 소식의 시를 읽고 총 13제 29수의 화소시까지 남겼는데 이러한 화소시 창작에는 소식과의 정신적 교류를 시도하거나 소식과 시재를 비견해 보려 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최입은 평소에도 소식의 시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갑오년 사행길에서 소식의 율시집을 산 후로 소식의 시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가까이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면 그 末流가 괜히 어렵게 짓는 폐단에 빠지거나 혹은 평이함을 해치는 면이 없을 수 있겠는가?(十家之外, 似可恨少者, 李商隱·蘇東坡二家. 余亦未嘗不喜, 然或不善學焉, 則其流得無失之艱與傷於易者乎?)<sup>53)</sup>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입이 소식의 시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이 책을 보게 될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잘못 배워 괜히 어렵게 짓기만 하고 평이함을 해치는 폐단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이지, 결코 그가 소식의 시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입의 시에 대해,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그의 시는 전적으로 소식과 황정견에게서 나왔다(其詩專出蘇黃)”라 했고, 河謙鎭은 《東詩話》에 그의 시가 中州의 名士들에 의해 “蘇長公(소식)의 기개와 품격이 있다(有蘇長公氣格)”<sup>54)</sup>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기록해 놓기도 했는데, 이처럼 당시 조선 문인과 중국 문인들 역시 최입의 시가 소식의 시와 유사하다고 여겼으니, 이 역시 최입이 시가 창작 방면에서 소식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을 방증해 준다.

그리고 최입 자신이 〈甲午行錄後序〉에서 직접 “나중에 海平公이 蘇州 사람 吳明濟를 만나 우연히 《行錄》 중의 내 졸작을 그에게 보여 주었더니, ‘蘇長公의 기개와 품격을 많이 지니고 있군요’라 했다 한다. 내가 감히 그 일을 가지고 일회일비할 수는 없지만, 중국 사람들은 시를 보는 것이 대충대충 보는 우리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5)</sup>”라고 밝혀 놓았는바, 최입 자신도 겉으로는 겸손해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자신의 시가 소식의 시와 닮았다는 평가에 만족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입이 소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소식 시에 대한 애호와 추앙에 근거한 필연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53) 崔岬, 〈十家近體詩跋〉(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3)

54) 이때 “蘇長公의 기개와 품격이 있다(有蘇長公氣格)”라는 평가를 받은 최입의 시는 《丁丑行錄》에 수록된 작품으로 丁丑年(1577) 사행길에 쓴 것이다.

55) “及後海平公遇蘇州人吳明濟, 偶示行錄鄙作則曰: ‘大有蘇長公氣格.’ 余不敢以欣以沮, 而可見華人看詩不似我人等閑也.” [崔岬, 〈甲午行錄後序〉(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甲午行錄》)]

이처럼 최입은 소식 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그는 八文章의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고 漢文四大家에 비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저명한 문장가였으므로, 그의 소식 시 수용이 다른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 역시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56)</sup>

### <참고문헌>

- 김남기, 〈簡易 崔岾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제6권, 2001.  
김덕수, 《崔岾의 삶과 詩世界》,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덕수, 〈崔岾 漢詩의 美的 特徵〉, 《韓國漢詩研究》 제8권, 2000.  
김보경, 〈韓國 「和陶詩」 研究 序說〉, 《중국문학》 66권, 2011.  
김우정, 〈宣祖 연간 文壇의 推移와 崔岾의 詩文〉, 《漢文學論集》 제50권, 2018.  
金昌協, 《農巖集》(韓國文集叢刊本)  
김현미, 《簡易 崔岾의 使行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柳素眞, 〈韓國古代文人的「和蘇詩」〉, 《中國語文學》 제63집, 2013.  
柳素眞, 〈조선 중기 성리학자 申欽의 和蘇詩〉, 《中國語文學》 제73집, 2016.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56) 일례로 그와 동시대 문인이었던 申欽(1566~1628)을 들 수 있다. 신흠은 평소 최입의 시문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입과 시로써 자주 교류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화소시 창작에 있어 최입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拙稿, 〈조선 중기 성리학자 申欽의 和蘇詩〉(《中國語文學》 제73집, 2016), 186-196쪽에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 蘇軾 著(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 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蘇軾 著(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申欽,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서울대학교 奎章閣本)
- 조규백, <조선조 문인의 소동파시 수용과 평가>, 《대동문화연구》 91권, 2015.
- 조규백, <고려·조선조에서의 소동파 수용에 관한 연구개황—1964~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73집, 2015.
- 崔笠, 《簡易集》(韓國文集叢刊本)
- 한성금, <簡易 崔昱의 使行詩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 《韓國詩歌文化研究》 제33권, 2014.
- 蘇軾 著(王文誥 輯注), 《蘇軾詩集》, 中華書局, 1987.
- 蘇轍, 《欒城集》, 上海古籍出版社, 1987.
- 王水照, 《蘇軾研究》, 河南教育出版社, 1999.
- 陸游, 《渭南文集》(文淵閣四庫全書本)

### <Abstract>

Su Shi(蘇軾, 1036~1101)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poets in the Northern Song(北宋) dynasty(960~1127). His poems were widely read by the poets of Koryo(高麗) dynasty(918~1392) and Chosun(朝鮮) dynasty(1392~1910) for about 900 years. But in the middle Chosun dynasty, admiration for Su Shi declined with the appearance of Korean neo-Confucianists. They criticized both Su Shi's academic theory and his literary character, but I found Choi Yip(崔昱, 1539~1612),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writer and neo-Confucianists of Chosun, was influenced by Su Shi(蘇軾) quite a bit.

Choi Yip(崔昱) wrote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Su Shi(蘇軾) mentally, or to compete with Su Shi(蘇軾) and show off his ability. And he often used Su Shi's poetic words by metamorphosing into his own poems, he also mentioned Su Shi's episodes in his own poems.

These facts mean Choi Yip(崔昱) admired Su Shi, and they also show us his will to accept and study Su Shi's poetry.

Choi Yip(崔昱)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writers in the literary circle of the middle Chosun Dynasty, so we can suppose that his admiration to Su Shi deeply affected the other writers of those days.

Key Words : 崔昱(Choi Yip), 蘇軾(Su Shi), 和蘇詩(responding poems to Su Shi's), 朝鮮(Chosun), 性理學者(neo-Confucianist)